



‘요즘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방선거’ ‘표심의 지도’ ‘지방선거 승리의 선거캠프’ ‘늑대의 선거’

‘우리동네 참일꾼’에 한 표 행사... 미리 알아야 도움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이드북은

첫 투표자 위한 지방선거 안내서·시민 교양서 추천
무심코 지나쳤던 ‘표심의 지리’ 새롭게 읽고 속지를
출마자들 위한 정치일반서·어린이용 선거 그림책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날이 밝았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를 이끌고 갈 지역 동량들을 뽑는 날이기에 유권자들의 신중한 한표가 요구된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순전히 유권자 본인의 몫이다. 아무런 대비없이 투표장에 나가면 아무런 기준없이 하는 투표밖에 남지 않는다. 최소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가서 투표를 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지방선거를 미리 공부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우리동네 일꾼을 뽑는데 사전학습의 교재가 선거를 분석한 책들일 것이다.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훑어보고라도 가면 길지(之)자 투표는 하지 않을 듯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동네 참일꾼을 선택하는데 관련 책들을 참조하면 어떻게. 관련 책들을 정리, 소개한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에 왜 무관심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요즘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방선거’(2026년 슬로디미디어 펴)는 OBS 사회부 취재팀을 거쳐 월간 ‘CEONNEWS’ 편집국장 및 언론사 ‘CEO저널’ 공동 창간자 등 다양한 언론계 이력을 지닌 최재혁씨가 펴냈다. 특히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함께 읽는 시민 교양서이자 첫 투표자를 위한 가장 쉬운 지방선거 안내서로 추천되고 있는 이 단행본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지방선거의 내밀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배경이 무엇인지,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지에 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단행본 곳곳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큰 선거에는 관심이 높지만 정작 생활과 밀접한 지방선거에 관심이 떨어지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

를 보면 ‘결국 지방선거의 의미는 권력의 배분이 아니라 ‘생활의 품질을 고르는 일’이라 정리할 수 있다’(p31)거나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자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분명히 잡는다’(p32), ‘구청장과 의회는 서로의 거울로 움직인다. 구청장은 ‘쓰는 사람’이고 의회는 ‘따져 묻는 사람’이라 흔히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청장은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사람이고, 의회는 그 시행착오가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규칙의 나사’를 조이는 사람이다’(p39)라는 문구만 살펴도 지방선거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정치학자를 비롯해 선거 전략가, 지역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한 표의 힘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정광일씨의 ‘표심의 지도’(2025년 퍼플 펴)는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표심의 지리’를 새롭게 읽어낸다. 대통령 선거보다 더 가까이에서 민심을 흔들고, 정당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지역 유권자의 감정과 선택의 궤적을 따라가며, ‘권력은 어디에서 솟아나는가’라는 질문에 정밀하게 답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치 변화의 시발점이 어떻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살피고 지방 유권자들이 무엇이 반응하는지와 정당이라는 브랜드가 점점 약해지고, 무소속 돌풍이나 탈정당화된 표심이 반복되는 배경을 짚는다. 또 수도권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과 분열을 파헤치고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선거를 분석하며 데이터 기반 선거 전략, 맞춤형 공약 설계, 선거구 획정

과 같은 ‘기술로서의 정치’를 다룬다. 이와 함께 분노, 체념, 불균형과 같은 지역 감정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지를 감정지리학의 관점으로 분석하며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돼버린 현상과 시청 권력이 어떻게 청와대의 정치를 흔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청년층과 MZ세대의 지역 투표 습관을 조망하며, 차세대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 등을 추적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위한 선거캠프 매뉴얼로 출간된 이기호씨의 ‘지방선거 승리의 선거캠프’(2025년 삼인 펴)는 투표자보다는 출마자들이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할 정치일반서다. 국회 및 청와대 출입기자를 거쳐 광역단체장 선거캠프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저자가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위해 뛰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캠프 운영의 핵심을 매뉴얼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의 내용만 꼼꼼하게 지키면 선거 초보자도 당선되는 선거캠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되는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주장하면서 소수 인력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자세로 ‘선거캠프’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도와줄 참모진 등이 한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선거캠프’가 후보자를 당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장 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당대회, 그리고 대선까지 모든 선거 분야의 선거캠프에서 승리에 기여한 저자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위해 뛰는 참모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당선 노하우의 A부터 Z까지를 이 한 권에 담았다. 이외에 유머러스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언제나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체계적인 작가 다비드 칼리의 우화 그림책 ‘늑대의 선거’(2021년 다림 펴)는 선거철을 맞이한 농장의 동물들이 대표를 뽑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농장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겪게 되는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세계명작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선거의 개념이나 과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점에서 아직 유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좀더 선거에 대한 이해를 북돋운다. 아울러 곳곳에 담긴 풍자적 요소가 그림책을 함께 읽는 어른에게도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작가의 유쾌한 상상이 담긴 ‘늑대의 선거’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고민해 볼만한 가치 있는 주제 의식을 담아 어린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 그림책을 읽는 어린이들이야말로 이야기 속 농장의 구성원이자 주인공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 참여의 가치와 현명한 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민심은 못 속이다 김해시의회의원 2026 지방선거 유권자 완전 분석’(2026년 지방정치시연연구소 펴)처럼 특정지역을 분석한 책 등 다양한 참고거리가 있어 이를 참조해 지방선거에 임하면 좀더 선거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책방지기 큐레이션 주목... 초여름 동네서점 ‘인문학 산책’

등명책방 꽃이피다 등 14곳서 진행... 철학·공유경제 등 문화 경험 ‘풍성’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책으로(路)’가 6월을 맞아 한층 깊어진 사유와 다채로운 장르 융합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달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철학·환경·사회적연대·역사적 증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동네서점만의 개성있는 큐레이션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음악·미술·요리 등 다 장르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주제적인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문학적 사유와 사회적 의제 확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2일 보림문고에서는 니체의 철학이 담긴 ‘위버멘쉬’를 통해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극복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6일 완벽한오늘에서는 셸리 케이건의 저서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를 중심으로 동물과 인간, 자연의 관계를 토론한다. 이어 10일 동명책방 꽃이피다에서는 김지우 작가를 초청해 ‘자본의 바깥’ 북토크를 열어 지역 공유경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어 16일부터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일엔 펠사로 마음을 전하세요’를

통해 필사 및 손편지 쓰기 체험을 이어간다. 12일 소년의서에서는 송혜림 박사를 초청해 ‘중언과 비중언 사이: 국가가 승인하는 피해자성과 증언이 기록되는 방식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20일에는 ‘차별비용: LGBT 경제학’ 북토크를 통해 소수자 인권과 경제학의 접점을 살핀다. 아울러 문화 체험과 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4일과 11일 러브앤프리에서는 드로잉 클래스 ‘그리는 습관 만들기’를 운영하며, 13일 치웃의자리에서는 자유독서와 비즈 책갈피를 만드는 ‘책꾸의 시간’을 갖는다. 27일에는 시를 나누어 읽는 ‘시낭송과 감자칩 모임’이 열린다. 15일 책과생활에서는 고선경 작가 등이 참여하는 제2회 블라인드 북토크 ‘지금 읽고 있습니다!’가 열려 독자들에게 텍스트가 주는 온전한 울림을 선물한다. 또한 세대 소통 및 예술 융합형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뤄질 예정이다. 16일 카드키드에서는 ‘비 오는 날’에 관한 그림책을 깊이 읽으며 감정을 나눈다. 17일 서로사랑하세요에서는 ‘오월살구클럽’의 하나로 지역작가와 함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문장카드를 제작해 오월



책과퀴스키이상에서 열린 독서모임 진행 모습.

광주의 기억을 문학으로 계승한다. 20일 더이람은 그림책 ‘난 토마토 절대 안먹어’와 연계해 ‘열매의 완성-푸드테라피와 피자만들기 요리체험’을, 26일 브라이언트정상에서는 ‘엄마랑 아이랑 책과 함께 웃는시간’을 각각 진행한다. 20일 예지책방에서는 그림책 ‘오징어방공전’의 고해진 작가와 작업 과정 이야기를 나누고, 28일 책과퀴스키이상에서는 김승우 작가의 ‘무진기행’과 ‘서울, 1964년 겨울’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진다.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기억책방에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주제로 한 ‘헬로 연주가 있는 코스모스 낭독회’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방식 공모제 전환

국내외 전시기획자 대상 공개 모집... 8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

(재)광주비엔날레가 제1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소수의 추천위원회 추천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해외의 명망가 위주로 예술감독을 초빙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창설 30년 역사의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점에서 서 있다. 이는 판단을 근거로 광주정신과 30년 역사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예술감독 선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추천제 중심의 선임 방식을 공개 공모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는 감독 개인의 명성보다 전시의 비전과 내용, 기획 역량을 중심에 두겠다는 취지다. 공모는 국적과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외 전시기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독 지원뿐 아니라 2인 이상의 공동 예술감독 체제로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재단은 민주·평화·인권의 광주정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현

대미술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안을 기대하고 있다.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 제17회 예술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국내외 전시기획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2028년 개최 예정인 제17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를 총괄할 예술감독을 오는 8일부터 8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는 지원서, 제안서, 포트폴리오 등 필수 제출서류를 광주비엔날레 이메일(gt17@gwangjubienale.org)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 및 제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8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2026년 8월 중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9월 중 전시계획안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1인(또는 1개 팀)의 예술감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접수 인원 및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